

침범침범 물



2021.07.05. ~ 2021.09.03.
소중한 물을 보호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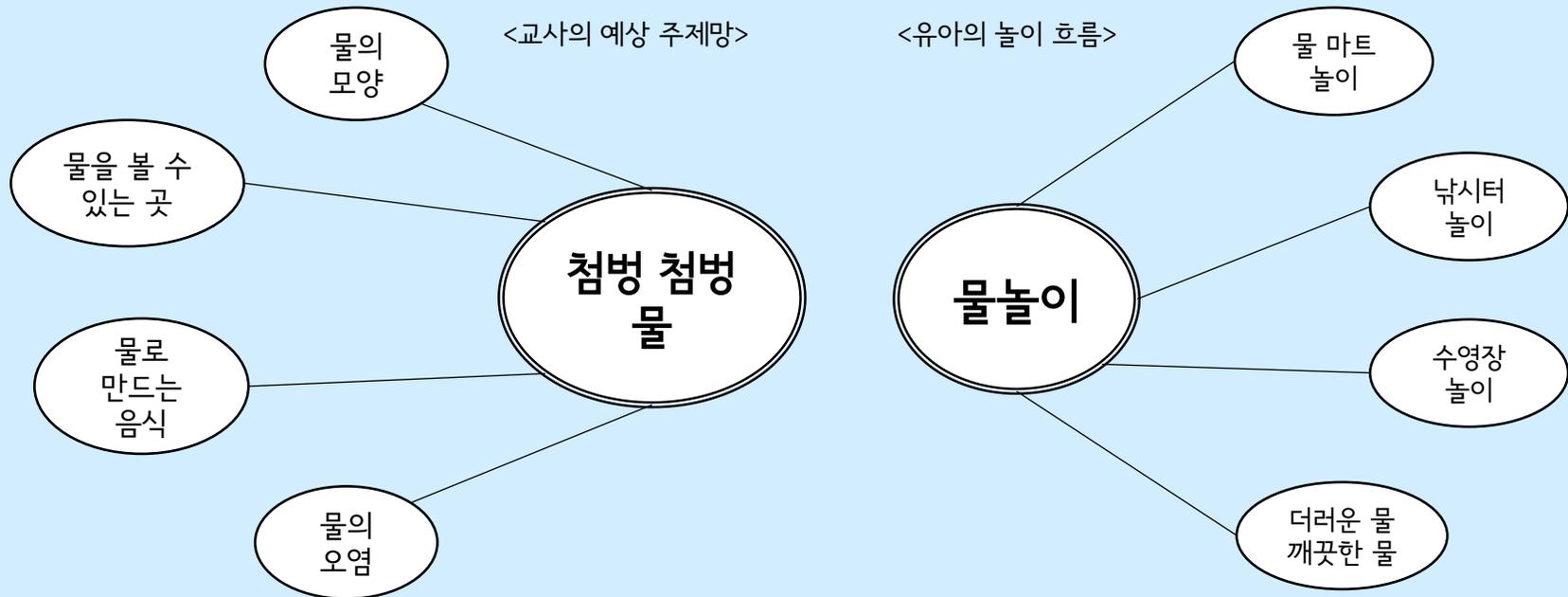
'침범 침범 물'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

여름이 되며 더워진 날씨에 주말 동안 수영장에 가거나 물놀이를 하고 온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달팽이에게 물을 뿌려주던 친구들은 우리도 물 놀이하고 싶다며 물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던 어느날,

'어제 내린 비는 다 어디로 간거지?' 라며 친구들이 궁금해하여 자연스럽게 물에 관심을 가지고 놀이하게 되었습니다.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 (07.05 ~ 09.03)



물 이전경험 그리기

물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물을 보았던 장소를 이야기 나누며 다양한 곳에서 물을 보았던 경험을 떠올려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여러 곳에서 물을 발견한 친구들은 신나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물통 속에 물이 있어요



엄마랑 물총놀이 할 때 물을 봤어요



물고기가 있는 어항 속에서 물을 봤어요



유치원 마당에서 선생님이 호스로 물을 뿌렸어요



비 오는 날 물을 봤어요

물의 다양한 모습

"물은 손에 잡히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은 '물'하면 손에 잡히지 않는 액체 형태만을 떠올렸습니다.

'그럼 손에 잡히는 물도 있을까?'하고 물으니 손에 잡히는 물은 없다고 대답했지요!

그래서 재미있는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 물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보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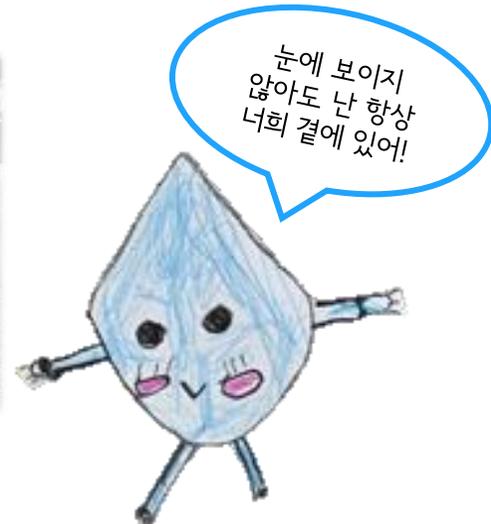
▲ 얼음을 만져보며 액체로 변하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 '얼음 녹이기' 게임을 통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 마당에 물로 그림을 그리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로 변하는 물을 관찰합니다.



물의 순환과정

유치원 마당에 물로 그림을 그리던 친구들은 증발되어진 물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순환에 대해 알아보며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하늘에서 내린 비는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교실 앞 복도 창문에 물을 담은 지퍼백을 붙여놓고 자유롭게 관찰해보았습니다.



▲ 햇빛을 받고 하늘로 올라간 물방울이 모여서 비가 되어 떨어지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 물방울을 접어 물방울의 여행을 떠납니다.



‘물 마트’ 놀이

“물마트입니다. 주스 팔아요~”

종이에 주스, 우유 등 다양한 음료를 그려 마트 놀이를 하던 친구들~

*‘종이라서 진짜 물 같지가 않아요. 납작한 거 말고 진짜 주스로 놀이하고 싶어요!’*라며

재활용 병을 이용해 물감과 재료를 넣어 다양한 색깔의 액체를 만들어 물마트 놀이를 하였습니다.



▲ 종이에 음료를 그려 놀이합니다.

▲ 여러가지 재료를 넣어 직접 음료를 만듭니다.

▲ 다양한 음료를 파는 '물마트' 놀이를 합니다.

낚시터를 만들어요

미술재료 중 긴 막대와 테슬 줄을 발견한 아이들이 낚시대를 만들어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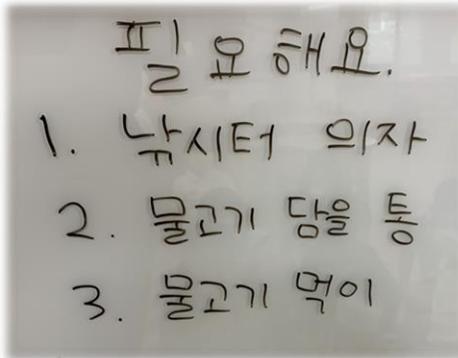
나무 블록을 물고기라며 낚시놀이를 하던 무거운 나무블록 대신
직접 그린 다양한 물고기와 낚시대로 낚시터 놀이를 즐겁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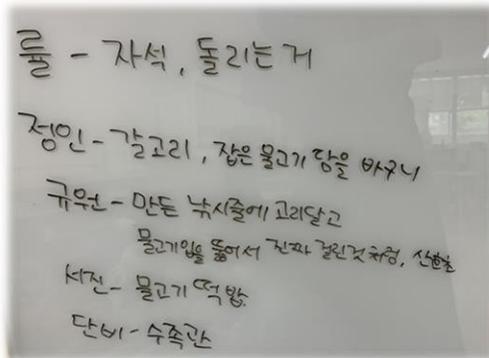
▲ 낚시대를 만들어 나무블록 물고기를 잡으며 놀이합니다.



▲ 낚시터에 놓을 바다생물을 그립니다.



▲ 낚시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 완성된 '바다생물 낚시터'에서 다양한 바다생물을 잡으며 놀이합니다.



더러워진 냅시터

마음튼튼 2반 친구들이 냅시터에서 신나게 놀이하는 동안 냅시터가 조금씩 더러워지고 있었어요.

냅시하며 마시던 음료, 냅싯대, 장난감들이 냅시터에 들어가있어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보여주니 다들 깜짝 놀랐어요.

냅시터가 이렇게 더러우면 물고기들이 살기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 ▲ 더러워진 냅시터사진을 보며 더러워진 물에서는
- ▼ 바다생물의 표정은 어떨지 상상하여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 물이 오염되는 이유도 알아보고 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도 알아봅니다.



물을 보호하는 비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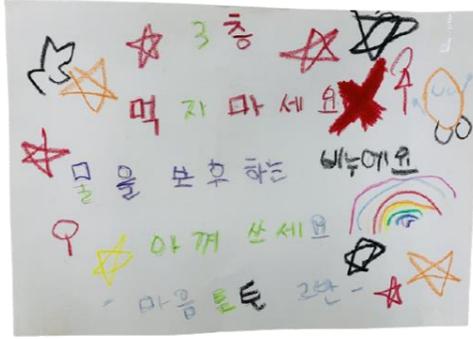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샴푸, 비누, 주방세제 등의 화학제품들이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친구들은

화학재료가 들어가지 않은 천연비누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 화장실에도 우리가 만든 천연비누를 두어 동생, 친구, 형님들도 함께 물을 보호하기로 하였습니다.



▲ 비누 안내문을 만듭니다.



▲ 직접 만든 비누와 안내문을 화장실 손씻는곳에 둡니다.



▲ 직접 만든 비누로 손을 씻어보며 물 보호하기를 실천합니다.

'침병 침병 물' 주제를 마무리하며...

물로 놀이하며 아이들은 물의 다양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이를 하며 자연스럽게 물의 오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스스로

분리수거를 하려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환경오염에 관심을 가지는

어린이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